

K리그, AF챌스 정상 탈환 도전

전북·울산·대구 등 출격
전남, K리그2 최초로 출전

오는 15일부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F~J조)가 시작한다.

K리그(1부) 디펜딩챔피언 전북 현대를 비롯해 울산 현대, 대구FC가 나선다. 또 K리그2(2부)의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IFA)컵 우승 자격으로 도전장을 냈다. K리그2 팀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처음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홈인드어웨이 방식이 아닌 중립지역에 모여서 경기를 치른다.

울산은 말레이시아, 전북은 베트남, 대구와 전남은 태국에서 각각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4개팀씩 한 조에서 경쟁한다. 각 조 상위 2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올해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2012년,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왕좌를 탈환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I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 조호르 다룰 탁림(말레이시아), 광저우(중국)와 대결한다.

가와사키는 현재 K리그에서 1위(6승2무2패)를 달리고 있다. 울산과 가와사키는 각각 K리그, K리그2의 선두팀으로 대결에 큰 관심이 쏠린다.

광저우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리저브팀으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 5연패에 빛나는 전북은 최근 리그 3연승으로 상승세다. 2006년, 2016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정상을 노린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 시드니FC(호주), 호안인 질라리(베트남)와 H조에 속했다.

공교롭게 요코하마와 시드니는 2020년 조별리그에서도 경쟁했던 상대들이다. 전북은 당시 시드니를 상대로 1승1무, 요코하마에 2패를 당



15일부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F~J조)가 시작한다. 사진은 전북현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했다.

요코하마는 지난해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해 본선으로 직행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해에도 리그 2위(5승3무2패)에 올라있다.

요코하마의 강점은 매서운 공격력이다. 17골로 18개 구단 중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18년 FC서울 소속으로 30경기에서 6골 4도움을 올렸던 안철순이 리그 10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이끈다.

대구도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를 꺾고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다. 지난해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대구는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F조에서 산둥 타이산(중국), 라이언 시티(싱가포르), 우라와 레드(일본)를 상대한다.

산둥은 광저우와 마찬가지로 리저브팀이 출전할 예정이다.

라이언 시티는 지난해 싱가포르 프리마어리 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다. 김도훈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있어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우라와 레드도 지난해 일왕배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했다.

K리그 최초로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장을 낸 전남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아시아 무대를 밟는다.

구단 역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린다. G조에서 유나이티드 시티(필리핀), BO배롬 유나이티드(태국), 멜버른 시티(호주)를 차례로 만난다.

K리그는 1987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 우승팀을 배출했다.

AFC 가맹국 리그 중 우승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2020년 울산(우승), 2021년 포항(준우승)이 2년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기도 했다. /뉴시스

테니스 꿈나무들 순창서 모였다

ITF 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17일까지 진행 중

순창군이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인 2022 ITF 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대회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테니스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테니스연맹(ITF) 및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6개국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테니스 유망주 중에서 ITF IHN(국제선수 등록번호)을 소지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남·남녀 단식, 남·녀 복식 경기를 치른다.

단식 입상선수의 경우 우승은 60점, 준우승 38점, 4강 18점, 8강 10점, 16강 5점의 랭킹점수가 주어지게 되어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더욱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등급이 J5에서 J4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신청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세계 테니스계를 이끌어 갈 유망주를 발굴하는 테니스 대회를 순창에서 개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참가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무관중 경기, 철저한 시설 소독, 발열 체크 등 건강 모니터링 부스를 운영하며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2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지도사범 모집

태권도진흥재단, 25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2022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에서 지도를 맡을 사범을 25일까지 모집한다.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에는 서울특별시 노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전북 전주시 즐거운 집 노인

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집 등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재단은 단체별 주·보조 사범 각 1명씩 선발할 예정으로 지도 경력과 사범 자격 증 공인 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선발된 사범은 지도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5월부터 각 단체로 파견되어 11월까지 주 1회, 총 20회, 기본 기술과 격파·호신술·겨루기 등의 수련을 지도하게 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임실서 체육정책발굴 간담회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12일 임실군을 찾아 임실군체육회 김병이 회장을 비롯한 임실군 회원종목단체장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도 체육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임실군 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종목단체의 현안 청취와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강선 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코로나19 여파 등의 사정으로 인해 늦춰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회원종목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12일 임실군을 찾아 임실군체육회 김병이 회장을 비롯한 임실군 회원종목단체장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테니스협회, 국가대항전 상대 우크라이나 '아낌없는 지원'

미국테니스협회가 여자 국가대항전인 빌리진 킹컵 상대인 우크라이나 선수단에 아낌없이 배풀 예정이다.

미국은 16~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빌리진킹컵 예선(4단복식)에서 우크라이나와 홈 경기를 치른다.

ISPN은 12일(한국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재정적인 문제와 지원 인력의 이동 문제로 인해 원정 경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미국테니스협회가 국제테니스연맹(ITF)과 함께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경기 참가를 돕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위해 미국테니스협회는 ITF와 함께 우크라이나 선수단의 숙박 등 경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회 입장 수입의 10%를 우크라이나 위기 구호 기금으로 기부한다. 여자 테니스의 '전설' 빌리진 킹(미국)은 미

국과 우크라이나 경기 개최식에 직접 참석해 5만달러(약 600만원)의 구호 기금을 준다.

미국테니스협회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지원 인력과 동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이끄는 율가 사브치카 감독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미국테니스협회와 ITF가 무척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조국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 경기 중계를 볼 수는 없겠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